



기상사랑

www.kma.go.kr Vol.384

2013. June 6

특별기고

‘WMO 집행이사 당선’ 기상 수장들이 한 곳에 모이다

풍경이 있는 날씨촌

관광·문화·레포츠의 중심 ‘양평으로의 힐링여행’

날씨 에세이

날씨를 알면 교통안전이 보인다

열린마당

예보관의 커피는 뜨겁다



기상청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번개」 2013 기상사진전 입선 박명숙 님 작품



천둥과 번개는 왜 생길까?

천둥과 번개를 일으키는 것은 구름이다. 구름 속에서 음전기(-)와 양전기(+)가 흐르는데, 두 전기가 부딪치면서 강력한 전기가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번개다.

천둥은 번개 때문에 10,000℃ 이상이나 가열된 공기가 심하게 팽창해서 나는 소리이다. 번개와 천둥은 똑같이 일어나는데, 번개가 치고 난 다음에야 '우르릉 쿵쿵' 하는 천둥소리가 들린다. 그 이유는 바로, 소리의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June 6



Contents

KMA Special Issue

- 특별기고 'WMO 집행이사 당선' 기상 수장들이 한 곳에 모이다 · 02
- 풍경이 있는 날씨촌 양평으로의 힐링여행 · 04
- 날씨 에세이 날씨를 알면 교통안전이 보인다 · 06
-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시대 · 08

KMA About

- 열린마당 '2013 기상청 우산 디자인 공모' 수상작품 · 10
-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 12
- 제주지방기상청의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 · 14
- '자출죽'을 아시나요? · 16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탐방기 · 18
- 예보관의 커피는 뜨겁다 · 20
- '형제의 나라' 중국 절강성기상국에 가다 · 22
- 길힐보다 색시한 운동화 · 24
- 2030 솔로탈출 딱 하루만 솔로였으면 좋겠다 · 26

KMA Hope

- 성범죄 예방 만화 주의해야할 성범죄 유형 · 28
- 날씨만화 우박 · 29
- 포토뉴스 · 30
- 퀴즈 · 32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2013년 6월호(통권 384호)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66 팩스 (02)836-5472
E-mail kimhy80@korea.kr 발행일자 2013년 6월 10일 편집기획 대변인실 발행처 기상청 발행인 이일수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편집장 나득균 편집 대변인실
디자인/인쇄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031)906-7735



이일수 / 기상청장

‘WMO 집행이사 당선’ 기상 수장들이 한 곳에 모이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WMO(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 첫날. 다소 서먹한 가운데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둘씩 사람들이 찾아와 인사를 했다. 금세 ‘기상’이라는 공통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반가운 마음에 한동안 이야깃거리를 피웠다. 이처럼 WMO 집행이사회 참석을 통해 느꼈던, 사소하지만 공감하고 싶은 몇 가지 일들을 전해볼까 한다.

먼저, WMO 집행이사로 선출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해준 아시아지역(RAII) 의장인 카타르의 아흐메드 압둘라 모하메드 기상청장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아시아는 집행이사의 경쟁이 심한 지역인데, 이란이 출마의사를 밝혔는데도 우리나라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가 만류했던 것이다. 덕분에 보궐선거에서 무난히 당선될 수 있었다.

캐나다 청장인 데이비드 그라임스 의장은 우리가 발언한 ‘전지구기후서비스 체제(GFCS)’ 구축과 이행내용에 대해, 한국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출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그는 K햄버거 가게의 할아버지를 꼭 닮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발표에는 단순히 “Thank you”라는 한마디만 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번 집행이사회에서는 S2S(Subseasonal to Seasonal Prediction) 국제조정사무소를 제주도에 설치하는 양해각서를 WMO와 체결하는 성과도 이뤘다. S2S 국제조정사무소는 2주에서 2개월까지의 예보에 대한 연구 활동의 지원과 조정을 수행하는 WMO의 센터이다. 또한 S2S 운영그룹 지원과 S2S와 국제 프로그램·활동간 협력 등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WMO와 업무협약 체결



기상청 주최 기념 만찬



WMO 집행이사단

제네바로 떠나기 전, 업무협약 행사를 가지기로 사전에 약속했다. 하지만 체결당사자간의 대표들만이 모여 간단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200여 명이나 참석한 집행이사회 본 회의장에서 박효성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미셸 자호 WMO 사무총장, 데이비드 그라임스 의장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WMO 집행이사, 분과위원장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는 서명식이 된 것이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체결을 하게 되니, 한국기상청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다.

다음은 그야말로 협약당사자들만 참석하는 작은 리셉션 장소로 이동했다. 그때, 이태리 청장 루이지는 내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며, 한국의 역할이 영원히 WMO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참을 손을 놓질 않아서 난감해지기도 했지만, 뿌듯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다.

월요일 저녁에는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집행이사회 참석자를 초청하여 리셉션을 개최했다. 철저한 준비에 대한 찬사도 많았지만, 김치가 채우기 바쁘게 빈 통이 될 만큼 인기가 대단해 놀랐다. 집행이사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대표단의 일부를 남겨두고 제네바를 먼저 떠났는데, 그 뒤 파키스탄의 차우두리 기상청장도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발언을 해 주었다고 한다.

기상청 국제협력의 방향은 WMO를 리드하면서, 단기간에 발전한 우리의 기상기술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 경감에 기여하고 기상영토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과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WMO 집행이사 선출, 시의 적절한 의제에 대한 발언, WMO와의 업무협약, 대표부 만찬, 적극적인 우호 발언 유도 등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준 많은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계속 국제회의에서 대한민국 기상청이 기여하고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한다.



제네바 레만호수에서 본 쌍무지개



관광 · 문화 · 레포츠의 중심

‘양평으로의 힐링여행’



김민정 / 이천기상대

남한강 자전거길 양평구간

첫 번째 코스로 선택한 건 남한강 자전거길이다. 남한강 자전거길은 팔당대교를 시작으로 양평군 북한강철교를 지나 여주 이포보로 연결되는데, 이 중 양평구간은 총 18km로 중앙선 양수 · 신원 · 국수 · 아신 · 오빈 · 양평역 6개의 전철역을 경유한다. 양수역은 최근 자전거여행의 메카로 부상한 곳이기도 한데, 이는 양평군이 중앙선 전철을 타고 온 여행객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한방에 날려 버리리라 마음먹고 양수역에서부터 페달을 밟아 나갔는데, 왕복 30분이면 되는 거리를 나의 느릿한 사이클링으로 인해 신원역까지 왕복 1시간이나 걸렸다. 가는 길은 남한강이 흐르고, 산과 꽃이 보이는 자연 친화적인 길이어서인지 눈도 마음도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 중 가장 마음에 든 건 중간 중간 위치한 터널! 이 터널을 지날 때의 그 시원함이란 선풍기와 에어컨에 비할 바가 아니다. 양평구간은 시원한 남한강변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과 체험시설이 있어, 레저와 관광 ·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관광자원이다. 가족, 연인과 함께, 혹은 혼자여도 오가는 자전거 여행객들과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자연을 벗 삼다 보면 금세 멋진 여행이 될 것이다.

바쁘고 빠르게 지나가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여유로움이다. 이 여유로움을 찾아 떠나는 양평으로의 힐링여행을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추천하고자 한다. 양평군은 면적 277.76km²로 경기도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 동부지역의 도시이다. 양평군을 수식하는 말들이 꽤 많은데 세계 보건기구가 인증한 건강도시, 국내 최초 친환경농업 특구 도시, 관광 · 문화 · 레포츠의 도시 등등이다. 단어들만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이 중에서 단연 최고라고 생각되는 관광 · 문화 · 레포츠 중심의 양평군을 소개하겠다.

두물머리[兩水里]

땀을 흘렸으니, 조금 쉬어가하고자 두 번째 코스로 양평의 명소 두물머리를 정했다. 두물머리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이곳은 예전엔 강원도에서 물길을 따라온 뗏목과 사람들이 쉬어가는 포구였으나, 1973년 팔당댐이 생기면서 포구가 없어졌다.

이곳은 새벽녘의 물안개 사이로 비치는 일출이 절경이라고 해서 사진작가들이 밤을 꼬박 지새우는 곳이기도 하다(2013년 기상청 기상사진전 입상작에도 두물머리 사진이 있다). 또한 드라마나 CF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강을 배경으로 수령이 400년이 넘은 웅장한 느티나무와 황포돛배가 있는 풍경이 단골 컷이다. TV에서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이곳을 찾는다면, 평범하고 웅한 풍경에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벤치에 앉아 조용히 흐르는 강과 탁트인 주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일상을 떠난 여유로움을 물씬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미원

두물머리에 들렀으니, 바로 옆에 위치한 세미원을 지나칠 수 없다. 그래서 물과 꽃의 정원인 세미원을 세 번째 코스로 정했다. 세미원의 어원은 ‘물을 보며 마음을 씻고, 꽃을 보며 마음을 아름답게 하라’는 뜻이다. 공원은 크게 석창원과 세미원으로 구분



두물머리



세미원



물소리길

사진 출처 : 양평군청

되는데, 석창원은 석창포 위주의 온실이다. 석창포는 현대에는 생소한 식물이지만 과거에는 늘 푸른 기상, 부드러운 자태, 맑은 물에서만 자생하는 청빈의 생활 등 옛 선비들과 뜻이 맞는 이상적인 벗으로 붓, 벼루, 먹, 종이 등과 함께 문방오우라 칭했다. 옛 선비들이 석창포의 덕성을 높이 평가해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던 것처럼, 석창포를 통해 선조들의 자연사랑 정신과 삶의 지혜를 학습하는 배움의 터라고 할 수 있겠다.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면 주는 음료로 목을 축이고, 배로 된 다리를 건너 세미원으로 향했다. 세미원의 가장 큰 볼거리는 누가 뭐라 해도 7~8월에 만개하는 연꽃이다. 이와 함께 향아리 모양의 분수대인 한강 청정 기원제단, 프랑스 화가 모네의 흔적을 담은 모네의 정원, 기후관측기구인 풍기대 등도 있다. 또한 수레형 정자인 사륜정과 조선 정조 때 창덕궁 안에 있던 온실 등이 전시되어 있어, 조상들이 자연환경을 지혜롭게 이용하였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세미원은 연꽃의 아름다움과 우리 역사의 숨결 등 자연·문화·예술 체험의 공간으로 손색이 없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이다.

물소리길

앞선 세 코스의 장점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마지막 코스는 올해 개장한 물소리길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길을 목표로 내세운 도보 여행길인 물소리길은 양평군 양수역~국수역 13.8km(1코스), 국수역~양평시장 16.4km(2코스) 등 2개 구간 총 30.2km 길이로, 강산과 마을이 어우러진 트레킹 코스이다. 자전거여행이 주변을 볼 여유가 적어 아쉬웠다면, 천천히 걸으며 하늘과 강과 산과 흙과 함께 하는 물소리길을 추천한다. 물소리길은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농로, 옛 철도터널, 자전거길이 어우러져 있어 다양한 환경을 두루 거칠 수 있다. 일부 농로와 산길을 빼곤 대부분 포장길이라는 점이 아쉽지만, 길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인공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람 사는 그대로의 모습을 살려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여행길이다. 가는 길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없었던 내 발 밑의 작은 들꽃들도 보고,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힐링여행 최적의 코스이다.

- 1 코스** 양수역~정창산묘~부용리 논두렁길~한음 이덕형 신도비~한계산 둘레길~부용산 약수터~몽양 여운형 기념관~신원역~양서초등학교~도곡터널~국수역
- 2 코스** 국수역~기곡터널~무광사~양근향교~옥천수공원~들꽃수목원~천주교 양근성지~양평군립미술관~양평시장

양평의 관광지가 워낙 많아 아직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양수역에서 출발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소개하였다. 이 외에도 경기도 유일의 레일바이크와 용문산 관광단지, 그리고 각종 축제로 가득한 양평으로 이번 주말, 저 멀리 숨어버린 여유로움을 찾아 떠나보길 바란다.

날씨를 알면 교통안전이 보인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놓고 출근준비를 하며 아침뉴스를 보는 게 나의 하루의 시작이다.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짧은 시간에 간략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난 손해보험사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최근 기상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상과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가 정부뿐만 아니라 보험사에서도 주 관심사이다.



이수일 / 현대해상 연구위원

기상에 따른 자동차생활과 안전대책 부분의 공급증과 개선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기상에 따른 교통문제라면 가장 대두되는 쟁점들이 아래의 4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비오는 날엔 왜 교통 혼잡이 증가하는가?

비오는 날에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한 번쯤 고민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번거로워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Agbolosu-Amison(2004)에 의하면 도로가 젖은 상태에서 통행시간이 13% 늘어났으며, 이는 평소에 비해 브레이크를 더 많이 밟기 때문에 차량 간의 충격과 발생하여 혼잡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똑같은 도로에서 맑은 날에 비해 같은 통행량을 가지더라도 87% 정도의 용량 밖에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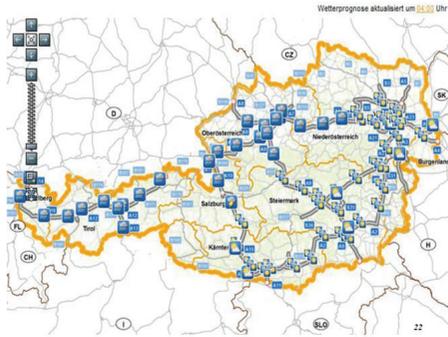
둘째, 기상정보에 따라 승용차 이용자들은 타 교통수단으로 어느 정도 변경할까?

사실 짧은 거리를 이동하거나 매일 가는 길을 갈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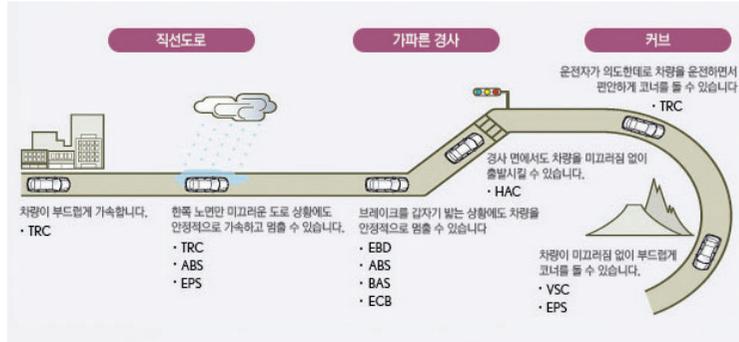
우에는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지만,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여행처럼 단체로 이동해야할 경우, 기상정보는 교통수단을 사전에 선택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 철도청연구원에 따르면, 승용차 이용자는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29.6%가 교통수단을 변경하였고, 그 중에 66%가 철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상예보는 이렇게 개인의 교통수단을 변경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청에서는 임시열차 및 배차간격 등을 조절하여 기상에 따라 운행전략을 세우고 있다.

셋째, 기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안전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개발에서도 눈·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일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상용화되었다. 대표적인 기술이 구동력 제어장치(TRC)로 차량이 평탄하지 않거나 미끄러운 도로에서 출발할 때 또는 가속할 때, 최적의 접지력을 유지해 주는 장치이다. 이는 기상이 나쁜 경우에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량의 기술력으로 노면의 미끄러움을 극복해서 운전자의 안전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도로기상정보시스템(SWIS)



렉서스의 Absolute Stability의 개념도



넷째, 기상에 영향을 받은 교통사고는 어떤 특성을 가질까?

기상에 따른 교통사고의 가장 큰 특성은 비오는 날에 야간사고의 구성비가 59%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안개 낀 날의 치사율이 9.8%로, 맑은 날 치사율인 2.2%보다 4.5배 수준으로 사망사고의 위험률이 높아진다. 또한, 겨울철에는 차량단독사고 비율이 27.1%로 다른 계절에 비해 최고 7.6% 높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다.

다음으로는 기상에 따른 교통안전대책들을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기억되는 가장 큰 사고는 무엇일까? 2006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46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 원인은 전방 가시거리가 60m도 안 되는 짙은 안개가 발생하여, 25톤 화물 차량이 1톤 화물차량을 추돌하면서 연쇄추돌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안개발생지역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보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안개발생이 잦은 지점에 안개감지센서를 설치하여 빠른 시간에 인지
- ② 교통표지판 등을 LED로 교체하고 조명시설을 낮게 설치하여 운전자의 식별 용이
- ③ 안개발생 구간에서 운전하는 요령 등을 휴게실 화장실 등에 홍보

오스트리아의 경우, 도로기상정보시스템(SWIS: Stra-Ben Wetter Informations System)을 운영하여 도로 주변에 기상관측시설을 설치하고 기상청 자료와 복합적으로 정보를 생성하여, 각 도로구간의 기상정보와 교통안전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도로구간별 안전운행과 원활한 소통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도 출발지점에서 도착지점까지의 기상예보 정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웨비게이션(Weavigation)을 개발하여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한 경로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기상은 교통운행과 안전부분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주요한 정보로 인식되고 있다. 예전에는 기상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들을 그냥 천재지변으로 치부하고 넘어갔다면, 최근에는 차량기술과 도로 시설물의 첨단화 등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

한번쯤 비가 올 때 차량에 어떤 안전장치가 더 있으면 좋을지, 도로에 어떤 시설물이 있으면 좋을지 생각해 보자. 기상정보를 이용한 교통안전연구들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는 악천후에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시대



채준병 / 푸른보령21 사무국장

우리사회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 벌써 21년여가 흘렀다고 하면 다소 의아해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의 '우리공동의 미래'에서 처음 제시됐다. 이러한 지속가능 개발 개념은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회담(유엔환경개발회의의 UNCED)에서 다시 등장해, 행동강령으로 '지방의제(Local Agenda)21'이 채택됐으며 이행상황 점검을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가 설치됐다.

'지방의제21'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우리 인류의 활동을 수용하는 대자연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자본을 대규모로 동원한 무절제한 개발이나 자원 공급은 자연환경의 수용능력을 범하기 때문에 지속가능개발의 이념에 위배된다. 요컨대 지속가능개발의 이념은 자연자원의 공급보다는 자연자원에 대한 수요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이념이다. 선진국 등 해외 133개국에는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NCSD)가 구성돼 각종 정책을 조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 9월에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248개 지자체 중 207개 지자체에서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에게도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바로 우리주변의 생활·도시·자연·생태·교육·근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환경은 현재의 우리 것이 아니기에 후손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어야 한다. 작게는 우리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자"는 말처럼, 우리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미래를 생각하는 건강한 보존과 개발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급속한 지구환경의 변화를 자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이때에, 매년 증가하는 자연재해의 규모와 피해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모두가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시민과 지자체, 그리고 기업이 공동의 협의를 통해 우리사회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지방의제21)과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그린스타트 운동에 대해 협의·실천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성실히 평가하고 지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린스타트네트워크¹⁾ 활동 비전 및 목표를 비추어 볼 때 보령기상대의 다양한 기후변화 이해 확산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 모범이 되고 있다. 보령시 기후변화 적응 대책 보고서에서도 기후변화의 예측,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상청(보령기상대)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내 모든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에너지 전략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실무자급의 협조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체로, 보령시 기후변화 포럼(가칭)은 민관연의 상호 긴밀한 연계로 기후변화에 대한 보령시민의 의식제고 및 기후변화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움직임은 비단 보령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움직임일 것이다.

1) **그린스타트네트워크** : 국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비산업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시작된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2008년 10월 출범되었다. 크게 민관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운동,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구현을 지원하는 국민운동,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수칙을 준수하고 확산하는 운동으로 활동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이해 확산의 환경 교육은 가장 우선시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작년 보령기상대에서 주제가 ‘기후변화, 우리들의 이야기’란 기후변화 이해 확산 프로그램을 학생과 군인,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20여 차례 강행군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남다른 감동을 느낀 적도 있다.

이는 환경교육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전략이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환경교육을 강화해가고 있는 국제적 추세와 국내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기상청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환경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UN도 2005년부터 2014년까지를 UN 지속가능 발전교육 10년으로 선포하고 국가별 이행계획 수립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제 다양한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확보하고, 이를 데이터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지자체는 물론 시민·기업·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병행해야 가능할 것이다. ‘기후변화 시대의 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이다.

기상청이 주최한 '2013 기상청 우산 디자인 공모'가 지난 4월,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되어 총 27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기후변화 메시지와 기상현상을 담은 의미 있는 디자인을 찾은 이번 공모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여 총 3,153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기상청은 수상작품들을 바탕으로 실제 우산과 기념품 등의 제작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복한 대한민국~ 날씨와 함께!



'2013 기상청 우산 디자인 공모' 수상작품



최우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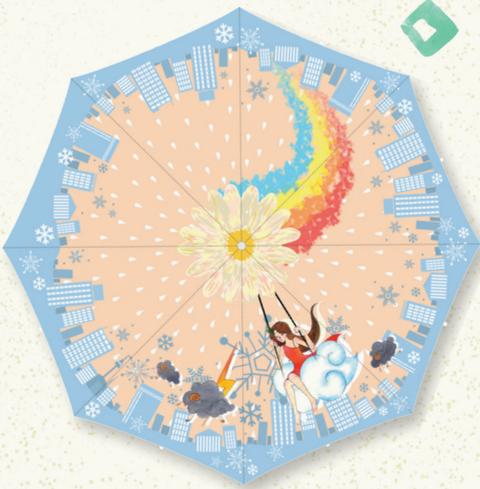


날씨를 즐기다

insight팀

| 임유영, 염가희, 이선연

기후 변화로 인해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모습을 여러 캐릭
터를 이용해 재미있게 표현



우수상
눈, 비, 바람, 번개구름
그리고 무지개가 있는 도시
| 강승현

번개, 구름, 바람 등을 캐릭터화하여 도시에 여러
기상현상들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



우수상
사랑은 빗방울을 타고
| 김지연

지구온난화로 녹아가는 빙하,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의 눈물, 아프리카 어린이가 마시고 싶은 물
등을 각각의 빗방울들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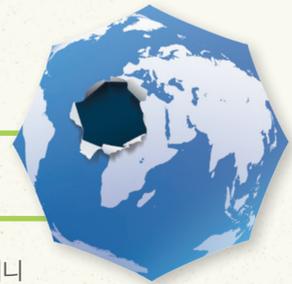
장려상



우리 집이 녹아요 | 이예은
이글루가 녹는 모습을 통해,
북극의 빙하가 녹아 북극곰의
집이 사라지고 있음을 표현



장려상



오존홀 | 최명순, 원예니
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우산과 해로운 자외선으로부터
지구를 지켜주는 오존층을 표현



장려상



하늘의 8단 변화 | 김승혜
태양-구름-비-바람-달-번개
-눈-무지개 순으로 하늘이 변화하여,
흐림 뒤 맑음이 온다는 것을 표현



장려상



예측 뒤편의 노력 | 김승훈
날씨 예측은 손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상청의 첨단 기술력과
직원들의 노력이 동원된다는 것을 표현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예전에 13살인 초등학생이 인터넷으로 배운 심폐소생술로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항상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다. 과연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것일까? 아님 그 학생이 타고난 기술을 가진 것일까? 때마침 완도기상대의 지역기상담당관 지역인 해남 소방서로부터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 알림문서가 왔다. 곧바로 함께 호흡을 맞추어 완도기상대의 재간동이 현명진 주무관을 섭외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문희정 / 완도기상대



심폐소생술 연습1



심폐소생술 연습2



심폐소생술 실전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이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늦추고, 심장의 정지 상태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응급처치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정해진 응급처치 시나리오에 따라, 마네킹으로 쓰러져 있는 환자를 설정한 후 두 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심폐소생술에 대한 숙련도와 협동성이 평가됐다. 먼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한 후, 신속하게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와 자동제세동기를 요청하고 가슴압박을 시작한다. 30회 가슴압박과 2회 호흡 불어넣기를 한주기로 하여 5번 실시한 후, 자동제세동기를 가슴에 부착하여 쇼크를

주는 것이다. 이때 가슴압박은 5cm가 눌릴 정도로 압박하여야 하며,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팔꿈치가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반응이 없으면 다시 가슴압박부터 시행한다.

유일한 여성팀, 연습만이 살길이다!

해남소방서에서 주최한 이번 경연대회에 완도, 해남, 진도 등에서 총 12팀이 출전했는데, 우리 팀만이 유일한 여성 도전자들이었다. 게다가 대회까지 연습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의식 없는 환자의 역할을 해줄 마네킹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실습마네킹으로 연습할 기회는 딱 3일뿐이었다. 연습장소를 완도기상

대 회의실로 정하고 완도에서 출전하는 3팀(완도기상대,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의용소방대)이 합동으로 실습하기로 했다. 이렇게 119안전센터 멘토의 특별 교육이 진행되었다.

해보니 쉽지만은 않고...

“하나, 둘... 서른!” 압박을 하는 손과 숫자를 세는 입은 각기 제 임무를 잊은 듯했다. 사람을 살리려다가 우리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다. 분명 그 초등학교생은 타고난 기술을 가진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긴장한 남성 참가자들은 압박에서부터 힘이 달랐다.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인 완도해양경찰서 두 순경을 라이벌로 정하고, 3일 동안 밤낮으로 연습에 매달렸다. 체력이 고갈된 두 여자에게 대장님께서 특별히 한우까지 사주셨고 그 응원 덕분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생명을 구하는 두 여자의 압박

대회장에 도착하니 제복을 입은 출전팀이 대부분이었다. 역시 사람은 옷빨(?)이 한 몫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우리 또한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전날 대장님께 미리 빌려둔 기상청 직원용 조끼를 입었다. 이것만으로도 자신감이 부족 상승했다. 우리 팀은 12팀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팀의 심폐소생술이 이어지는 가운데 웬지 모를 자신감이 더욱 상승했다.

라이벌인 해경의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우리 두 여자의 압박을 선보일 차례! 긴장되는 순간, 연습한대로 마네킹에게 달려가 30회 압박과 2회 불어넣기를 실시했다. 어느새 실습용 마네킹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이 아닌 실제 의식 없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나보다.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손등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 이렇게 두 여자의 심폐소생술 대회는 끝이 났다. 드디어 시상식! 사회자 입에서 우리 팀의 이름이 불려졌다. 완도해경과 같이 2위로 우수상을 수



(위에서부터) 상장 수여식, 우수상 수상, 단체 사진

상하게 되었고, 영예의 1위는 해남교도소팀으로 넘어갔다.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유일한 여성출전자인 기상대 팀에게 다들 놀라다는 반응을 보였고, 특히 해남소방서 여대원들은 여자가 해내기 힘든 대회를 멋지게 수상까지 했다고 칭찬해주었다.

끝나지 않은 사랑의 깍지

아쉽게 최우수상을 받진 못했지만, 생명을 살리는 기술을 배운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 또한 이 대회로 끝내지 않고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발급하는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다. 전문강사에게 교육을 받고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다. 보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다면 응급상황에서 수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생명구하기 프로젝트', 사랑의 깍지를 이번엔 배워보는 건 어떨까?

나는야, 제주지방기상청의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



김예인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초 6년



나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 주 토랜스에서 살았다. 미국에서 돌아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무척이나 낯설었다. 밖에 눈이 오는 것도 날씨가 쌀쌀한 것도 말이다. 내가 살던 토랜스는 해양성 기후로 바다의 영향을 받아 연중 온난 습윤한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바람은 강하며 습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같은 지구인데도 이렇게 까지 다르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평소 난 날씨과학에 관심이 많다. 미국에 사는 동안 가족여행을 하며 다양한 기후와 자연 환경, 도시, 나무, 사막, 선인장, 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 국립공원과 주립공원 방문객센터(Visitor Center)의 Junior Ranger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선서를 하기도 했다. 옐로우스톤국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화산폭발이 지구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2월, ‘땀다!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좋은 경험은 물론이며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됐다. 사실 난 기상청이 단지 기온을 재고 날씨를 예측하여 일기예보를 하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도 백엽상을 이용하여 온도를 재고, 구름의 양과 움직임, 높고 낮음을 단지 위성으로 관측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내가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기상청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상청이 정말로 대단한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실시간으로 측정한 기상데이터를 모아, 슈퍼컴퓨터에 담아 다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최종 날씨를 알아내는 것이



▲ 관측원리 이해
▶ 주말기후스쿨(간이온도계 만들기)



▲ '똥대!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 발대식

▼ 제주과학축전 기상기후과학 체험장 운영



다. 지금은 백엽상이 아닌 자동으로 관측하고 있으며, 좀 더 정확한 날씨 정보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보게 되니 뿌듯한 느낌도 갖게 되었다.

요즘에 내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기후 변화이다. 재작년만 해도 4월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처럼 4월에 눈이 내린 건 정말로 지구가 빨간불을 켜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많은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너무나도 덥다. 우리 엄마 말씀에 3월에 눈이 내린 것을 본 적은 있어도, 4월에 눈이 내린 것은 처음 봤다고 하셨다.

더 큰일은 바로, 사계절이 뚜렷하던 기후 특성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심각하면서도 신기한 상황을 보면서 날씨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 또한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었다. 우리가 즐겨보는 일기예보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것은 기상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땀방울이라는 것을 말이다.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제주과학축전에서 8명의 홍보대사인 우리들은 '똥대! 하늘사랑 어린이 홍보대사의 기상기후과학 체험장'이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와 엘니뇨·라니냐 현상 등을 전시하였다. 또한 우리들의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간이온도계 만들기 체험을 흥

보부스에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설명 자료도 제작하는 등 홍보부스를 직접 운영하니,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의 이런 활동으로 많은 아이들이 지구온난화에 큰 관심을 가져, 그것을 방지하는 미래 일꾼이 되어 지구에 빨간불이 아닌 초록불이 켜지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심각한 지구의 빨간불을 노란불, 초록불로 다시 켜기 위해서 우리는 지구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고, 실천이 가능한 자그마한 일부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지구 전체를 살릴 수 있는 한 걸음으로써, 지구를 더 깨끗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해서,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을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한다.

"이직은 아프지만 곧 건강하게 될 지구야, 파이팅!"

‘자출족’을 아시나요?



김영희 / 대전청 기후과

다시 만난 자전거

내 업무 중에 하나는 대전지방기상청에 학생들이 견학을 오면 홍보관을 안내해 주는 일이다. 먼저 1층 현관에 내려가 학생들을 맞이하고, 3층 홍보관에 올라가 일기예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날씨를 관측하는 기상관측장비는 어떤 모양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해주곤 한다.

그런데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탓에 1층에서 3층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움직였을 뿐인데 금세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곤 했다. 난 이것이 다 운동부족에서 오는 것이라 결론짓고, 어떤 운동이 좋을지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회사일과 집안 일을 하느라 운동시간을 따로 만들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집에 계속 방치되어있던 자전거가 생각났다.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운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오랫동안 세워져있었지만, 먼지를 닦아보니 제법 탈 만했다. “좋아! 자전거로 출퇴근을 해보자!”

새롭게 발견한 아름다운 풍경

드디어 자전거를 끌고 집을 나섰다. 가족들은 아주 오랫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은 날 걱정했지만, 나는 설렘만이 가득했다. 집을 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전거도로가 나왔다. 그 도로를 따라 내려가니 갑천을 따라 죽 이어져있었다. 쪽 뺨은 자전거도로에서 신나게 페달을 밟았다. 정말 상쾌한 기분이었다.





▼ 자전거대회에 출전한 홍순희 사무관



갑천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도로는 잘 정리되어 있었고, 자전거를 달리며 보이는 풍경은 푸르렀다. 평소 이곳 대전이 제법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아름다울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다. 그전에는 미처 모르고 지나쳤던 하천에 비치는 햇살과 초록빛으로 빛나는 봄의 풍경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천에는 백로, 천둥오리, 왜가리,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들과 수선화, 토끼풀들이 출근길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자전거의 매력에 푹 빠져들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전거를 내달리다 보니 내가 마치 푸르른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착각을 일으켜 주었다. 처음엔 쉽게 운동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는데,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기분이었다. '힐링자전거'의 매력에 푹당 빠져들었다.

나는 자전거를 이제 타기 시작했지만, 사실 우리 사무실에는 나보다 훨씬 먼저 자전거의 매력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았다. 우리 동네에서 나보다 먼저 자전거 출퇴근을 시작하신 운동마니아 김영동 과장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마라톤 완주에 빛나는 체력으로 각종 자전거 대회에 출전하고 계시는 홍순희 사무관님, 주말에는 40~60km씩 자전거를 타시고, 올해 자전거 국토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민우 주무관님, 최근 깜찍한 미니벨로를 사서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다

녀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홍성근 주무관, 10km 정도 되는 출근거리를 달려오는 박민규 주무관...

누가 기후과 직원 아니랄까봐 우리 과의 반이 넘는 사람들이 녹색생활 실천을 하고 있었다.

'자출족', 목표를 향해 달린다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 즉 '자출족'인 내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올해 목표를 적어보는 드림카드를 작성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 난 당당히 자전거로 '100번 출퇴근하기'라고 적었다. 아직 자전거를 비틀거리면서 타는 초보 중에 초보이고, 오르막과 내리막에는 자전거를 끌고 오는 길도 많다보니, 4km 정도 되는 거리를 30~40분 정도 걸려서 오곤 하는 나다. 하지만 나의 목표 100번이 채워지면, 나의 자전거는 더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굴러갈 것이고, 자전거에서 내리는 횟수도 끌고 오는 거리도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

그때쯤엔 회사까지 몇 분 만에 갈 수 있을까?
벌써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국내 유일의 기상학 전공이 있는 학교 공군항공과학고 탐방기

우리나라에 기상학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가 있다?!

기상학은 대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는 전문분야로 알려져 있는데, 기상학뿐만 아니라 항공분야의 핵심기술을 전공으로 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다고 하여 찾아가보았다.



백승철 / 기상청 블로그 기자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 내 위치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1969년 공군 기술부사관 양성이라는 목표아래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고등학교다. 학생들은 재학기간 중 학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으며 생활하고, 졸업과 동시에 전원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된다. 전공분야는 항공통제(관제, 기상), 항공통신, 항공기계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항공통제과는 항공기상을 세부전공으로 다루는 과로 학생들은 공군 기상단 및 각 비행단 기상대에서 활용할 지식을 미리 배운다. 작계는 미기상학부터 크게는 우주기상까지 총체적으로 다루며, 특히 안전한 항공기 이착륙과 더불어 항공작전을

수립할 때 기상변수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부한다. 공군에서 얻어지는 기상정보는 그 신뢰도가 뛰어나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 해군에게도 제공하여 국가방위의 비 전투적 핵심 업무를 지원한다.

수업은 철저히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다. 이론수업으로 바람이 왜 불고 어떻게 부는지, 온도는 왜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등의 기초 기상학부터 시작해, 실습수업은 일기도 작성과 전문해석, 그리고 단열선도 등을 다룬다. 그래서 졸업시기가 되면, 기상기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학교 건물



공군기상단 견학



일기도 작성 수업



정비실습실

(사진 출처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상학 수업시간에 찾아간 교실. 어리지만 당찬 학생들의 학습목적은 뚜렷했다. 전공을 선택한 계기에 대해 묻자, 기상학은 모든 생활, 특히 군에서는 모든 작전에 지원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직접 다루는데 긍지를 느낄 수 있어서라고 했다. 또한 복잡한 수식을 통해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기상학의 매력이라고도 말했다. 그들은 일반 고등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전문분야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매우 강해 보였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일기도 작성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같은 전공이지만, 학생들마다 관심분야는 조금씩 달랐다. 한 학생은 미기상학에 관심이 많으며, 공항에서 Microburst, Wind shear 등 수분~수 초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기상현상이 예보가 어렵긴 하지만 그만큼 매력 있다고 한다. 옆에 있던 학생은 받아치듯 우주기상학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신비한 우주의 기상현상을 알아가는 것 자체에 큰 흥미를 느낀다며 자신은 스케일이 크다고 전했다.

인상 깊었던 점은 이들 대부분이 본인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원래 전산, 컴퓨터 쪽에도 관심이 있어 기상학을 전공하면서 전산공부도 병행하여 ATIS(항공기술정보시스템)와 같은 기상 시스템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또한 다른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

여 전공을 심화해서 전장범위가 넓어지는 공군의 추세에 맞게 천문학 연구로 공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의 후배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미리 파악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무엇을 하는 학교고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인지 정확히 알고 지원해야 공부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전했다. 기상학 전공하는 학생들 외에도, 분주하게 항공기 관제실습을 하는 학생들부터 실제 항공기를 가지고 정비실습을 하는 학생들까지 학교 이곳저곳에서 흥미로운 장면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작년엔 정부로부터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지정받았다고 하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대한민국 기상학의 꿈나무들!

이번에 찾아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채로운 분위기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전혀 지루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흥미로운 학교였다. 인터뷰를 하는 학생들은 전투복 복장이었고, 일부 선생님을 제외한 교관들 또한 해당분야를 전공한 현역 장교와 부사관들이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을 가르치는 교관 또한 자부심이 대단해 보였다. 장차 대한민국 기상분야 뿐만 아니라 하늘을 지키는 공군으로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항공분야의 주역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든든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예보관의 커피는 뜨겁다



허병진 / 강원청 예보과

아관파천 때 러시아 공사 웨베르(Waeber)의 처형 손탁(Sontag) 여사가 고종에게 커피를 대접했다. 이것이 커피를 마신 조선인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환궁 후 고종은 손탁 여사에게 호텔을 지어주어 이 땅에 첫 커피숍이 생겼고, 그로부터 100여년이 흐른 지금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만 3,200곳이 넘는다. 커피시장이 4조 3,700억(2011년 기준, 당시 녹차 시장은 800억)이니 ‘국민음료’라 할 만하다.

커피 금수조치가 해제된 이후 커피를 대중화시킨 일등공신은 동서식품이 세계 최초(1976년)로 개발한 믹스커피의 편리함이다. 원두커피가 인기를 끌고, 캡슐커피머신이 혼수품목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는 여전히 간편한 믹스커피다. 맥심모카골드의 경우 2011년에 무려 74억 개, 초당 366개가 팔렸다.

사람들이 커피를 찾는 이유는 단맛이나 향 때문만은 아니다. 카페인이 주는 각성효과도 한 몫 한다. 또렷한 정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업무를 처리하게 도와주는 음료가 커피다. ‘국민음료’ 믹스커피를 더욱 맛있게 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위험기상을 피하고 호기상을 만드는 것과 이치가 같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커피 한잔하며 살펴보자.



우선 커피의 기미(氣味)를 알아야 한다

커피가 각성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그 성질이 차기 때문이다. 즉 커피는 뜨거워진 머리를 냉철하게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 성질이 찬 커피가 머리에서 작용(두한죽열)하려면 커피는 상승기류를 타야한다. 그래야 커피가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식혀준다. 즉, 커피를 맛있게 타는 방법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믹스커피를 뜨겁게 타느냐에 달려있다. 그래봤자 온수기 물로 탄 커피는 손님 앞에서 100도를 유지하지는 않는다. 탕비실에서 응접실로 가는 사이에 가장 맛있으면서 마시기에 적합한 온도로 식으니 화상의 염려는 접어두시라.



**일단은 뜨거운 물을 한 가득 부어서
잔을 충분히 덥혀야 한다**

차가운 잔에 뜨거운 커피를 부으면, 마치 찬 지표면 위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접근하면서 이류 안개가 발생하듯이 그 커피를 마신 사람의 심기는 오리무중으로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커피를 낸 사람의 당일 일정도 안개 속에서 혼미할 수밖에 없다.

뜨거운 물을 붓고, 잔이 충분히 데워지면 식은 물은 모두 버려서 잔을 비운다. 그리고 커피믹스를 잔 바닥에 곱게 쓴다. 이제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붓되, 최종 목표량의 반 정도만 붓는다. 그리고 그 물로 커피를 완전히 녹인다. 미처 녹지 않아 액체가 되지 않은 커피 알갱이는 어느 비인지, 진눈깨비인지, 우박인지, 하여튼 관측에서부터 골머리를 앓게 하는 위험기상이니 반드시 모두 녹여야 한다.

커피가 완전히 녹았으면 뜨거운 물을 마저 붓는다. 그리고는 반시계 방향, 즉 저기압성 회전으로 저어준다. 그래야 커피를 마셨을 때 그 기온이 상승하여 머리를 식혀준다. 물론 처음 부은 커피 물과 나중에 부은 맹물을 고루 섞어 커피 맛을 균질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바람이 불면 기온이 오르듯 커피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커피 타기는 끝났다. 이제 폼핑 받을 일만 남았다. 「이집트 사자의 서」에 의하면 죽은 자는 오시리스 앞에서 심장을 꺼내놓고, 영혼의 무게를 달아 영혼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새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 정성껏 탄 커피가 깃털처럼 가벼워 날아오를 듯 진실하다는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커피 잔을 소형증발계나 우설량계처럼 다뤄야 한다. 즉, 잔 바깥에 물이 묻어서 실제로 무거워지면 안 되니 잘 닦자.

일기예보는 예측만 잘했다고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통보, 즉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듯이 커피도 맛있게 타기만 한다고 끝이 아니다.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라비언의 법칙’처럼, 실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듯 커피를 마실 사람에게도 최선의 예우를 갖춰야 한다. 잔 받침에 엮고, 쟁반에 받쳐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만든 커피는 정말로 다른 커피보다 맛있을까? 조주영 차장님이 강원지방기상청장 시절에 궁금해하시던 비법을 공개한 것이니, 꼭 확인해보시라.



‘형제의 나라’ 중국 절강성기상국에 가다



부산지방기상청과 중국 절강성기상국은 1998년 기상협력약정을 체결한 후, 기상협력과 기상기술 교류를 위하여 양국 대표단이 매년 상호 교차 방문하며 기상협력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4월에도 7일 동안 김성균 부산지방 기상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8명이 ‘제18차 기상협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절강성기상국과 소속기관을 방문하였다.



조은주 / 안동기상대



고층빌딩이 키 재기 경쟁하는 상하이



아름다운 도시, 항주의 서호

만 가지의 매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항주’

국제공항이 있는 상하이에서 기상국이 있는 항주로 가는 길. 아파트 크기의 몇 배가 되는 굴뚝에서 나오는 시커먼 매연과 뿌연 하늘을 보며, 중국은 세계적 문제인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항주에 도착하자마자 그 생각은 급세 바뀌었다.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항주가 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여행가 마르코폴로가 그 아름다움에 매료됐다는 곳이 바로 항주이다. 몇 백년이 넘었을 것 같은 나무들이 길을 수놓고 있고, 도시속 공원에는 맑고 경쾌한 새소리가 방문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항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서호 주변 100m 이내에는 답답한 고층빌딩 대신, 2층 이하의 나지막한 건물들이 즐지어 있었다. 또한 군데

군데 중국인들의 소박한 야외 찻집들이 많이 있었는데, 서호의 아름다운 비경을 보존하기 위해 3층 이상 건물은 부수고 다시 낮게 세웠다고 한다. 고층빌딩이 키재기 경쟁하는 상하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또한 전기 오토바이만 허용되어서 일반 오토바이는 찾아볼 수 없었고, 서호의 유람선조차 배터리로 동력을 구동할 정도로 환경오염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놀라웠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 둘러보았지만, 마르코폴로의 표현에 공감이 갈 정도로 중국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아름답게 가꾼 항주는 많은 매력으로 가득했다.

중국기상국의 발전 속도는 ‘빠름~ 빠름~ 빠름~’

절강성기상국은 부산지방기상청과의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벤치마킹과 정부의 투자를 기반으로 최신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등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인력·



절강성기상국 업무 소개



한중회담



서호 10경-삼담인월(三潭印月)

시설 투자 면으로 볼 때 잠재적인 발전가능성도 매우 컸다. 아직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면을 따라오기에는 한참 멀었지만, 외형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를 능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1998년부터 교류해왔지만 대표단이 처음 방문했던 Ningbo 기상국은 우리와의 교류에 더 뜨거운 호응을 보였고,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고 했다. 또한 기상인력 교류를 통해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이도 있었고, 다음에 대표단으로 한국에 꼭 가고 싶다는 이도 있었다. 그만큼 우리의 교류가 중국기상국의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증거이다.

낙뢰전담부서가 있어요!

절강성은 지형적인 원인으로 낙뢰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 건물의 피뢰침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낙뢰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수백 명에 이르러 2006년부터 낙뢰예보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연간 40~50명 정도로 사망자가 많이 줄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강한 낙뢰가 발생하고 난 다음날에는 낙뢰분석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상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놀라운 것은 중국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절강성기상국에 피뢰침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기상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기상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중국에서 기상정보는 돈을 주고 사는 것!

기상예보업무, 기상장비 검·교정업무, 기상교육업무, 건축물 허가(관측환경보호) 등 현재 한국기상청에서 수행하는 업무 외에도 기상방송업무, 건축물 피뢰

침 설치 허가 업무, 광고풍선(ad ballon) 허가 업무 등 기상현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중국기상국의 책임이 컸다. 단, 많은 인력이 확충되어 있고 업무가 분업화되어 업무 부담은 적었다.

한편, 자체 제작하는 기상방송은 수수료를 받고 관할 지역 방송국에 제공하고 있었다. 건축물 피뢰침 설치 허가, 광고풍선 허가 업무 등에서도 수수료를 받고 있어, 일부 민간기상사업체에 제공하고 있는 유료 정보를 제외한 많은 기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기상청과는 차이를 보였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중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 밤에는 인기 가요 프로그램인 'I'm singer'의 최종 결승이 있었다. 7일간 우리를 안내해 준 절강성기상국의 후인나(Hu Yina) 주임에 따르면, 한국에서 방송됐던 MBC 예능프로그램인 '나는 가수다'와 비슷한 콘셉트인데, 아주 인기가 좋다고 했다. 중국은 과학적인 면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한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었다. 이렇듯 기상청은 앞으로의 경쟁력을 위해 국제적인 업무 감각을 기반으로 개인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선진기술력과 아이디어, 세분화된 기상정보 등 차별화할 수 있는 서비스분야 등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좋은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려면 대표단 교류 시, 각 나라의 문화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좋은 문화를 전파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절강성기상국은 부산지방기상청을 '형제'라 칭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더욱 돈독한 협력관계를 다지고, 앞으로도 기상·기후의 협력 파트너로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킬힐보다 섹시한 운동화



이옥수 / 대변인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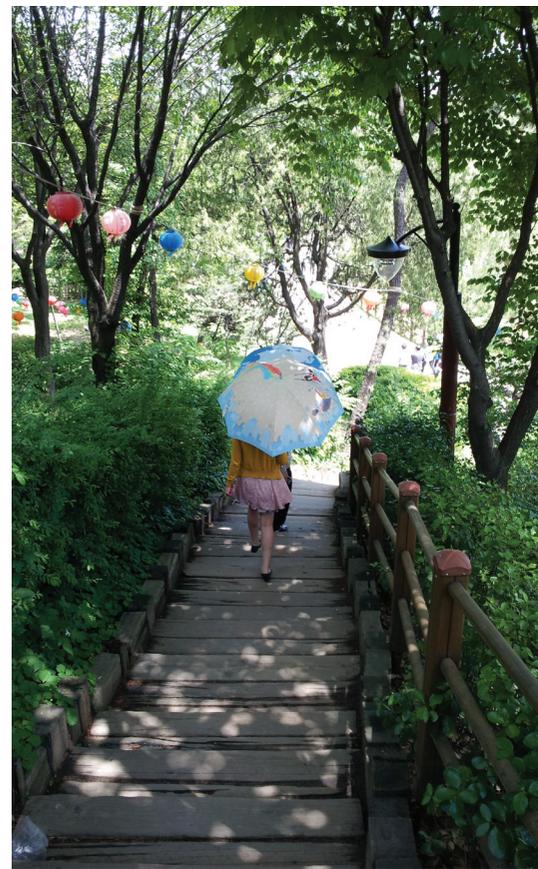
몇 해 전부터 10cm가 넘는 킬힐(kill heel)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다. 아찔한 높이의 굽과 화려한 컬러는 그녀들의 몸매와 발목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는 데 충분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운동화를 신은 도시 여자라는 뜻을 가진 '운도녀'가 패션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녀들이 건강을 킬(kill)하는 킬힐을 벗어던지고 운동화를 신기 시작한 것이다.

높은 구두를 벗은 그녀들이 낮은 운동화를 신은 이유는 뭘까? 심미성과 기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출시된 캔디컬러의 워킹화도 한 몫 했을 게 분명하지만, 무엇보다 운동화가 킬힐만큼이나 섹시해졌기 때문이다.

운동화를 신은 그녀들은 이제 종종 걸음으로 지하철을 타러가지도, 가지런한 보도블록만 가려서 밟지도 않는다. 킬힐만큼이나 스타일리시한 운동화를 신고 지하철 계단을 오른다. 하루 이용객이 700만 명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은 일상 속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걷기 운동 코스다. 무엇보다 계단과 복도가 어우러진 지하철에서 빠르게 걷는 출퇴근길이야말로 전문가들이 원하는 속보에 꼭 들어맞는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기구나 장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 시간을 별도로 만들기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출퇴근길의 빠른 걷기나 계단 오르는 가벼운 운동으로 적격이다. 하지만 체내 지방은 운동 시작 후 최소 20분이 지나야 연소되기 때문에 체중감량을 목표로 한다면 30분 이상의 걷기가 필요하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걷기 운동도 일주일에 5번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굳이 한 번에 30분 이상을 채울 필요는 없다.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걷기 운동은 다른 운동만큼이나 효과가 좋다. 미국의 로런스버클리연구소는 걷기 운동이 심장병 3대 위험요소





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영국의 런던국립심장포럼은 하루에 30분 이상씩 주 5회 이상 걷는다면, 심장마비의 위험을 37%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D가 체내에서 합성되어 면역력까지 강화된다. 뒤로 걸을 경우에는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이 완화되고,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과 인대를 사용하게 되어 무릎 기능을 향상시킨다. 뿐만 아니라 걷기 운동은 내분비계의 측면에서 보면 엔도르핀이나 세로토닌과 같은 각종 호르몬의 분비를 활발하게 하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걷기 운동의 활성화로 스포츠브랜드의 매출 신장에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걷기 운동은 그 자체의 효과나 기타 측면에서의 이득을 빼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운동이다. 기상청에서 운영되는 비공식 동호회인 ‘이현규의 걷기교실’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체중 감량을 위해 걷는 사람도 없고, 균형 잡힌 호르몬의 분비를 위해 걷는 사람도 없으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걷는 사람도 없다. 아주 단순하게, 점심시간에 삼삼오오 모여 기상청 옆에 있는 보라매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에서 시작했다.

사실 걷기 운동이 아니라 담소가 곁들여진 가벼운 산책에 가깝다. 그래서 부담 없이 참석하고, 부담 없이 불참한다. 걸으면서 그 누구도 오늘은 몇 칼로리가 얼마나 소모되었는지 묻지 않고, 세로토닌의 분비로 기분이 한층 나아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보라매공원에 핀 꽃이 산수유인지 생강나무인지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겹벚꽃은 홑벚꽃이 진 후에 만발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철쭉과 영산홍은 아무리 봐도 헛갈리지만 말이다. 아마도 낯익은 운동화를 신은 그녀들이 낯익은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섹시한 건, 조금 더 가벼워진 발걸음과 운동으로 약간 더 탄탄해진 발목, 그리고 꽃과 나무의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리라.

19세기,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는 “걸어라, 그래서 행복하라, 그리고 건강하라”며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세기를 사는 ‘운도녀’들에게는 “걸어라, 그래서 보아라, 그리고 섹시하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이현규의 걷기교실’은 점심시간에 정문 앞에서 출발한다. 높은 기온과 자외선 때문에 망설인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하계특별걷기 코스가 신설되었으니 말이다. 그리고 그녀들이 생각보다 섹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원한다면 누구나 함께 걸을 수 있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딱 하루만 솔로였으면 좋겠다

내겐 하나뿐인 오빠가 있다. 세 살이나 위면서 하는 행동은 딱 세 살배기 아이 같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챙겨줘야 하는 참 맘디맑은 가족이다. 항상 '라면 끓여 와라, 설거지해라, 책 좀 반납해라' 등등 밖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창피하니까 말 걸지 말라면서, 집에선 그렇게도 내 곁을 맴돌며 귀찮게 하기 일쑤인 그다.

어렸을 때야 뭇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젠 나도 어엿한 사회인이 된 마당에 그의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게 됐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지 않나! 어느덧 반항기에 돌입한 그는 내게 온갖 징징거림을 선사했지만, 난 토닥토닥 달래고 어르고 타이르며 오빠에게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그날만은 달랐다. 바로 오빠의 친구, J님이 집에 놀러왔으니까 말이다. 겨우 걸음마를 떤 나의 '우쭈쭈' 오빠와 달리, J님은 무척이나 어른스러운 '상남자 중의 상남자'라고나 할까? 그래서 J님이 올 땐, 꼭꼭 숨겨져 있던 조신본능을 발동시켜, 오빠의 연이은 부름에도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양큼녀'로 변신하게 되었다. 호호~ J님은 과일을 갖다 주며 수줍게 웃는 내게,

“참 착하네. 나도 너처럼 예쁜 동생있음 좋겠다.”
“나도 올 오빠 말고, J님 동생하고 싶어요~”

아, 정말 이 대답센스! J님은 금세 떠났지만, 그 달달한 여운은 며칠이 지나 솔로로서 맞이하는 나의 네 번째 생일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다. 기나긴 솔로생활에 지쳐 어장 관리라도 당하고 싶지만, 그 누구의 물고기도 되지 못한 채 홀로 생일을 맞이한 내게, '띠링' 하고 문자가 왔다. 바로 J님이였다!



“안녕~ 나 J인데 기억나?”
“앗, 그럼요. 기억나죠.”
“생일이라고 들었어. 축하한단 말하고 싶어서~”
“와아... 고마워요!”
“밥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혹시 시간 돼?”
“저야 종죠. 오빠한테 시간 되냐고 물어볼게요.”
“아니, 난 둘만 봤으면 좋겠는데...?”



쿵.. 쿵쿵.... 쿵쿵쿵! 심장이 마구 요동쳤다. 그건 분명 데이트 신청이었으니까! 아무리 솔로로 오래 지냈어도, 그런 눈치 정도는 아직 남아있었다.

“에구, 부담스럽지? 미안...”
 “아니에요! 조금 당황해서... 전 괜찮아요.”
 “아싸! 그럼 주말에 볼까?”
 “네, 좋아요~”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있던 내게, 기쁘게도 먼저 성큼 손을 내밀어준 J님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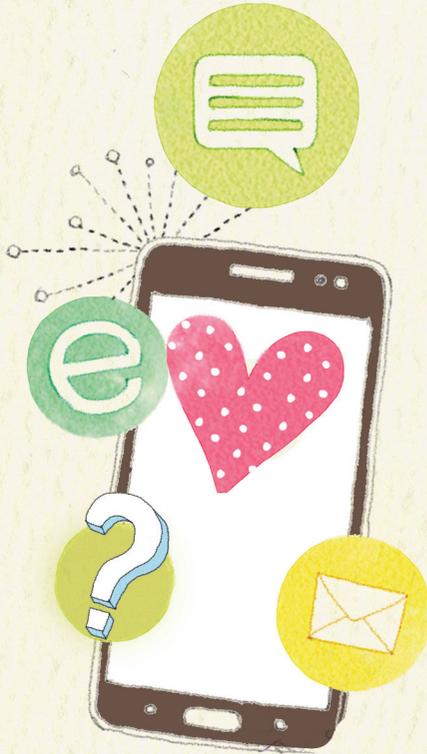
“아, 몸은 괜찮아?”
 “네~ 괜찮은데요?”
 “그럼 요즘은 변기안 막히겠네. 너 변비땀에 화장실 갈 때마다 큰일 치른다며?”
 “오빠가 그래요? 저, 딱 한 번밖에 안 그랬는데!”
 “그럼, 요즘도 밤에 피자 만들고 그래?”
 “저, 요리는 잘 못하는데...”
 “왜~ 술 먹은 날은 자다가도 푹푹 베개에 피자 한 판 그린다며??”
 “네??!!”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그는 분명, 내가 알고 있던 J님과 너무나 달랐다.

“네 오빠가 걱정 많이 하더라. 요즘은 나 있을 때만 착하게 군다는데, 사람이 한결 같아야지~”
 “서, 설마..... 지금 J님이 아니라?”
 “ㅋㅋㅋㅋ! 이제야 눈치 챘냐? 하여간 둔해~”
 “우쭈!! @#%^&*#\$%#@!!!”
 “이거 J 핸드폰은 맞거든? 문자 안 지운다~!”
 “이, 이런... 원하는 게 대체 뭔데?!”
 “우선, 나 내일 입을 옷 내놨으니까 좀 빨아 봐. 조심히 손빨래해야 하는 거 알지?”

아... 정말 이 천진난만한 오빠를 어떡하면 좋을까! 죽어가던 연애세포가 간신히 고개를 빼꼼 내민 것을, 아주 그냥 꺾꺾 밟아버리고 말았다.

정말, 딱 하루만 솔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고!





주의해야할 성범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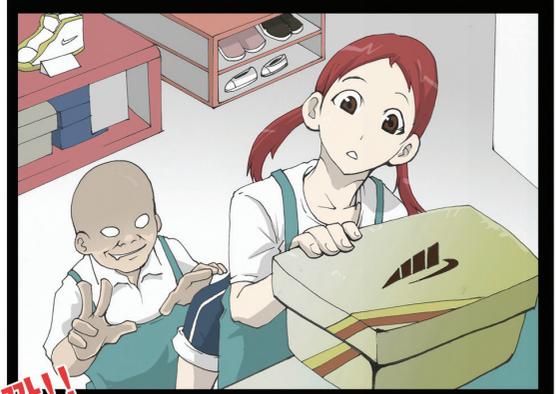
성범죄 유형 #1 - 대중교통 내에서의 성추행



잠깐!!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고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형 #2 - 친인척 및 지인에 의한 성추행



잠깐!!

친구, 동료, 이웃, 친척 등 면식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유형 #3 -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추행



잠깐!!

짧은 옷을 입었을 경우, 가방으로 치마 뒤를 가립니다.

성범죄 유형 #4 - 화장실 몰래카메라 유형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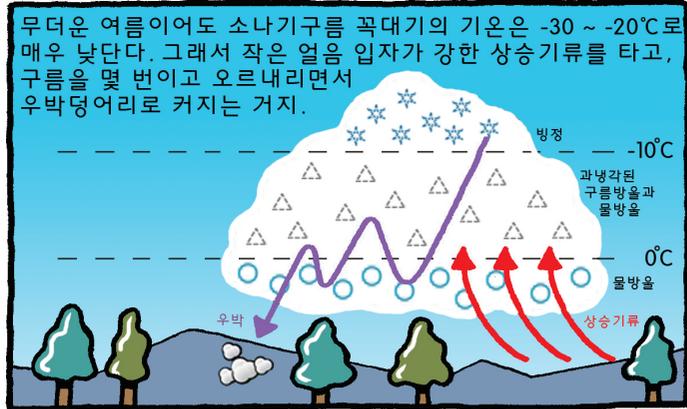
구석에 수상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





내일
마음
기쁨

<28> 우박



‘날씨, 패션의 꽃을 피우다’ 패션쇼(5.31)

날씨와 패션이 융합된 문화행사인 ‘날씨 패션쇼’가 기상청 해시계 광장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의 기후를 담은, 세명대 패션디자인학과와 다양한 작품 51점이 소개됐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 편집진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습기자 방문(5.8)

지역 언론사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기상현상과 주요 기상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기후변화감시센터 정책현장탐방(5.9~10)

세계기상기구 지정 지구대기감시소인 기후변화감시센터의 지구대기 관측·분석·감시 현황과 기후변화 감시·대응에 대한 언론의 이해를 위해, 기상청 출입기자 22명과 함께 현장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켄 전 단장에 훈장 수여(5.13)

이일수 청장은 미국 오클라호마를 방문해, 케네스 크로포드 전 기상선진화추진단장에게 한국 정부를 대신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여름철 방재기상업무 시작 선언(5.15)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재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각오를 다짐하기 위하여 국가기상센터에서 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여름철 기상 브리핑(5.23)

올해 여름(6~8월)의 기온과 강수량, 태풍 등의 기상전망에 관해 출입기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웨더맨' 영상제작 및 배포(5.31)

태풍, 폭염 등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여름을 맞아, 기상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수 사이의 '젠틀맨'을 패러디한 '웨더맨'을 제작·배포했다.

여럿이 하나되어 즐거운

Quiz!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머리 좀 식히면 어떨까요?
「하늘사랑」도 읽고, 상품도 타고, 스트레스도 풀고~♪
5분의 여유만 있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달 퀴즈

- 심장마비를 일으킨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① 진공흡입기 ② 소독약 ③ 반창고 ④ 자동제세동기
-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법칙은?
① 메라비언의 법칙 ② 머피의 법칙 ③ 샬리의 법칙 ④ 정글의 법칙
-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가 말한 "000, 그래서 행복하라, 그리고 건강하라"에 들어갈 000은?
① 웃어라 ② 믿어라 ③ 걸어라 ④ 뛰어라

지난 달 퀴즈 정답
1. ④ 이상파랑 2. ② 바래봉 3. ① 문종

지난 달 퀴즈 정답자
1. 박경수(서울) 2. 김다솔(평택) 3. 정진우(춘천) 4. 조근수(울진) 5. 김준홍(대구)



퀴즈 정답은

퀴즈 정답은 6월 25일까지 전자메일(kimhy80@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사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아래한글 10point, 줄간격 160%,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글과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채택된 외부기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인사발령

내용	일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전보	5.16	기상청	대변인실	기상사무관	허진호
		예보국	총괄예보관실	기상사무관	윤기한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사무관	이시우

복지가 주민과 가까워집니다!

개편전

양육수당 교부금 일자리... 어디서 지원받을 수 있지?

고용 복지 보건 주거 교육 문화

개편후

한곳에서!

주민센터

고용 복지 보건 주거 교육 문화

우리동네 주민센터가 복지허브로!

2014년 2월부터 단계적 시행

	복지정보 종합안내	심층상담, 복지급여서비스 정보 패키지 안내
	복지서비스 신청 접수 확대	현재 143개 급여에서 단계적 확대
	개인별 맞춤 서비스	다양한 욕구파악 - 서비스 제공 등 맞춤 서비스 고용 - 복지 연계 강화
	방문서비스 활성화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독거노인 돌보미 등 방문형 종사자간 협업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	공공, 민간 협력 통한 사각지대 발굴

2013 집중호우 캠페인

